提　言

第2의 跳躍위해 10% 消費節約운동에 앞장서자

吳　判　龍 (本會 事務局長)

휘청거리는 經濟와 들뜬 오늘의 社會風潮를 하루빨리 바로잡고 第2의 跳躍을 가능하도록 우리 3천會員家族들이 앞장서서 「10%씩 절약」하고 「10%를 더 貯蓄하는」 民間主導운동을 展開하여 국민들의 호응을 받아야겠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過消費·勤勞精神 해이·一部 몰지각한 지도층의 부패와 道德性의 沒落으로 司法的인 大手術을 하는 한편 우리 스스로 打開策을 세우지 않으면 危殆로운 지경이다.

或者는 80年代 後半의 우리經濟가 高度成長에 의한 物質的 풍요로 過消費와 投機가 만연하여 경제위기에 봉착한 点은 20年代의 美國경제, 60年代의 日本경제와 유사한 点도 있긴하나 時代的 差가 있기 때문에 勤儉節約과 勤勞意識의 회복등 一大改革으로 第2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최근 바르게 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10% 소비절약운동」 주장은 과거의 추상적인 소비절약運動서 벗어나 뚜렷한 目標를 設定한 点에 對해 共感帶를 이룰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동안 우리 周邊에는 虛飾的인 겉치레 口號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過消費」가 오늘의 高物價 經濟難속에서 커다란 社會문제로 登場되었음에도 一般國民들은 남의 일로만 생각해 왔다. 그런것은 특권층이나 돈많은 사람들에게만 該當되는 일로 여겨온 것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계각층 南女老少 모두가 現在의 씀씀이에서 10%씩 줄이고 10씩 더 저축하자는 것이기에 나라의 장래, 경제위기를 救한다는 決意만 서면 가능한 일이라 여겨진다.

10%대를 威脅하는 物價와 100億달러의 貿易赤字를 눈앞에 둔 現實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올여름 休暇철 2개월동안 海外나들이에 쓴돈이 8억달러, 올해 먹다버린 음식물이 9兆원어치에 이를 것이라는 통계도 있다. 이는 전체 음식물의 33%이며 쓰레기 총發生量의 27%라 한다. 이와같이 아깝게 버려지는 음식물이 年15%씩 增加한다고 하니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의 浪費性 食生活도 過消費추방운동과 함께 뿌리를 뽑아야 한다. 家庭에서부터 非合理的이고 사치스러운 食生活文化를 고치고 政府는 龍頭蛇尾가 된 注文食單制의 持續的 권장·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對日무역적자폭은 갈수록 심한데도 日製고급승용차가 선호도가 높고 언제부터인지 일제 간장, 고추장까지 사다먹는 주부가 있다는 신문기사를 보니 뭔가 크게 잘못돼 가는 것 같다. 지난 8월경부터 紙上을 어지럽게한 亡國的인 과소비·호화사치사례는 매거하기 어렵다. 지난 10월15일 鄭元植 국무총리는 國會對政府 질문답변에서 「社會지도층 人士의 호화사치성 物品반입등 밀수사범을 重点 단속하고 앞으로도 문제人物은 끝까지 추적, 특별관리하는등 음성不勞所得者에 대한 사회적 制裁措置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公言했다. 그밖에도 政府는 醜態海外관광등으로 國威를 손상시킨 海外旅行者 등에 세무사찰, 여권발급제한, 출국금지조치 심한경우는 名單公開方針도 밝혔다.

돈이 많다해서 英語도 못하는 高校生을 美國에다 不法유학 보내 未熟兒 취급받는 웃지못할 「바보유학」事例등 모조리 털어 鐵槌를 加해야만 이 救國운동인 10% 消費운동이 成功될 수 있다.

지난 9월29일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弘益大는 李勉榮 총장을 비롯한 전직원들은 刻苦의 節約운동으로 국내 대부분의 대학들이 재정난으로 대폭적인 교수충원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올 한해 76명의 교수를 새로 채용, 大學街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온도조절이 必要한 전산소, 실험실, 교환실外는 총장실마저도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뿐이며 차량도 버스 1대와 총장용 엑셀승용차(公式行事外는 손수운전)와 공용의 프레스토 1대뿐. 총장집무실이 2평이고 결재실이 2평 달려 있는데 교무회의가 열리는 회의실도 8평남짓. 이같은 節約의 結晶으로 地下 2층, 地上 6층(1천5백여평 규모)의 기숙사와 지하 2층, 지상 10층(2천6백평)의 조형관을 신축하고 있다는 소식이니 지나치게 사무실 치장에 過消費하는 각급 官公署부터 본받아 마땅하다.